

지역 소식통

완주군 봉동읍, 도시재생 참여 주민 모집

완주군이 봉동읍 도시재생에 함께 참여할 주민을 모집한다. 19일 완주군 봉동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는 오는 23일부터 6월 10일까지 도시재생 주민제안 공모사업에 참여할 주민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봉동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이번 공모는 봉동지역 내 주민공동체 발굴·육성을 통해 다양한 지역문제해결을 해결하는 것으로 지속가능한 주민공동체 형성을 위해 기획됐다.

참여 주민들은 스스로 기획, 제안 실행에 이르기까지 사업전반의 과정에 참여하게 된다.

봉동 도시재생사업지역에 거주하거나 다양한 이유로 해당지역에 활동하는 3인 이상의 주민 또는 단체라면 누구나 신청가능하다. 사업내용은 도시재생관련 모든 분야에 적용될 수 있다.

추후 사업의 타당성, 실현가능성 등 종합적으로 평가해 3개 팀을 선정하고, 팀별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공모신청은 완주도시재생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공고와 함께 관련 신청서식을 다운로드 받아 이메일 또는 방문제출하면 된다. /완주=이종복 기자

김제농기센터, 돌발해충 적기 방제 당부

김제시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에서는 매년 농작물과 산림에 피해를 주고 있는 돌발해충(갈색날개매미충, 미국산너벌레, 꽃매미)에 대해 5월 중순부터 7월 상순까지 적기방제 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돌발해충은 미국산너벌레, 갈색날개매미충, 꽃매미로 5월에 부화하여 10월까지 활동하며 농작물이나 조경수, 산림 등의 가지 즙액을 빨아 가지를 고사 시키거나 분비물과 과잉이나 잎에 그늘음병을 유발하여 큰 피해를 준다.

김제시농업기술센터에서는 돌발해충 방제를 위해 20백만 원을 투입하여 40농가에 적용 약제 공급을 이미 마쳤으며 발생 상습지와 월동난 예방결과를 바탕으로 5월 중순부터 7월 상순까지 317ha 면적의 농민에게 방제를 진행할 계획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새정부 국정과제 맞춰 신속 대응

박성일 완주군수, '새정부 국정과제 분석과 대응 보고회' 서 90여개 사업 발굴·대응 내실화 주문

완주군이 새정부 국정과제에 맞춰 90여 개 대응사업을 지휘부에 보고하고 향후 추진계획을 구체화하기로 하는 등 대응 내실화에 적극 나섰다.

완주군은 19일 오전 군청 4층 중회의실에서 박성일 군수와 실·국장 등을 포함한 고위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새정부 국정과제 분석과 대응 보고회'를 개최하고, 새정부 정책 방향에 따른 국가예산 확보와 공모사업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완주군은 이날 기획감사실과 행정복지국, 경제산업국, 건설안전국,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등의 순으로 윤석열 정부가 이달 3일 발표한 '11대 국정과제'와 관련한 후속 대응과제 90여 건을 보고했으며, 지휘부와 간부진이 심도 있는 토론을 벌였다.

완주군은 각 사업별 대응 전략과 관련해 ▲사업 필요성 ▲추진 현황 ▲추진 방향 ▲세부 추진계획 등을 구체화하고 신속한 대응을 통해 향후 국·도비 확보에 유리한 고지를 선점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제시된 대응과제에는 기회발전특구 지정 추진과 강소권 특화 발전전략 대응, 현장 밀착형·수요 맞춤형 규제개혁 등과 각종 위원회의 효율적 관리, 노인맞춤돌봄 서비스 강화, 소상공인 지원, 도시생태 복원 사업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지역 최대 현안인 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포함한 마한역사 문화권 정립과 개발,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혁신도시 활성화 등에



대해서도 향후 추진의 고삐를 늦추진 않는다는 방침이다.

특히 완주군은 기존에 추진해온 정책은 고도화하고 신규 정책 발굴에 주력하기로 했다.

한편 국정과제와 관련된 부처 세 부정책은 수시로 모니터링 하는 등 이른바 '퀵 리스폰스(Quick Response·신속한 대응) 전략'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해 나간다는 복안이다.

박성일 군수는 이날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를 국정비전으로 내세운 새정부의 국정과제에 맞춰 기존정책의 고도화와 신규정책의 발굴 등 신속한 대응이 중요하다"며 "향후 부처 정책변화에 유예 없이 지역 현안이 후순위로 밀리거나 무산되지 않도록 초기부터 적극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군수는 또 "기회발전특구 지

정과 관련한 선제적 대응, 강소권 특화 발전전략과 관련한 전북도와 협력체계 강화 등이 필요"라며 "지역의 신성장 동력인 수소산업이 핵심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완주군은 이달부터 대응과제별 세부 논리개발과 사업내용 구체화 등 후속대책을 마련해 가기로 했다. 필요하면 시간별 용역 발주나 전문가 토론회 등을 과감히 추진하고, 향후 수립될 중앙부처 국정과제 세부 로드맵에 관련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 국가예산 확보와 관련한 고지를 선점한다는 구상이다.

완주군은 또 2024년 국가예산 확보와 관련해서도 오는 7월경에 신규 사업 발굴에 착수해 올 9월 경에 1차 발굴 보고회는 개최하는 등 발걸음을 빨리 하기로 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한발 앞선 혁신으로 지역경제 견인"

유희태 완주군수 후보, 출정식 갖고 필승 다짐

더불어민주당 유희태 완주군수 후보가 출정식을 갖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나섰다. 19일 유희태 후보 선거사무실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30분께 완주군 고산농협 앞에서 유희태 후보를 비롯해 지지자들이 모인 가운데 출정식을 가졌다.

이날 유 후보는 언제나 한발 앞선 도전과 혁신으로 지역경제를 이끌어 가겠다고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첫발을 내딛었다.

유 후보는 "미래완주의 발전과 군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한 노력을 더해 민주당 후보자들을 비롯해 당원들과 함께 승리를 거두겠다"면서 "저의 완주의 미래에 대한 설계에 대해 귀 기울여주시고 지켜봐 달라. 반드시 모두가 누리는 완주! 미래행복도시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완주의 난국해결에는 기업이라는 해결책이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저와 같이 기업을 잘 아는 경제전문가이자 의리로 지켜온 민주당의 경험 많고 경륜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면서 "신중하면서도 중요하지만 드러난 문제점들은 신속하고 과감하게 보완해 저에게 기대하는 많은 분들에게 실망시켜 드리는 일이 없도록 하는 등



모든 것을 내려놓고 완주군민들 속에서, 지역민과 함께 지역민의 눈높이에 맞춰 반드시 좋은 결과를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유희태 후보는 "선거 마지막까지 열정과 성실, 겸손의 더 낮은 자세로 최선을 다해 군민의 마음을 얻어 더불어 민주당이 전승의 선거 결과를 이뤄내자"며 필승의 각오도 다졌다.

한편 유희태 후보는 이날 오전 전라감영 앞 광장에서 김영명 도지사 후보 및 우병우 전주시장 후보, 정현을 익산시장 후보, 김임준 군산시장 후보 및 기초의원들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출정식을 가진데 이어 거리 유세에 나서 등 생활을 건 총력전에 돌입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완주를 대한민국 1등 행복 도시로"

국영석 완주군수 후보, 고산시장서 출정식... 본격 선거전

국영석 완주군수(무소속) 후보는 완주군 고산시장에서 유세단 출정식을 갖고 본격적인 거리유세에 들어갔다.

국영석 후보는 인사말을 통해 "저는 오직 완주군 발전을 생각하고 정치를 시작한 순간부터 지역발전 방안을 연구해왔다"며 "누구보다 완주군을 사랑하는 국영석과 함께 완주의 미래 발전에 동참하자"라고 호소했다.

이러 국 후보는 "채선 도의원, 농업조합장, 각종 지역 활동을 통해 완주군 13개 읍면 구석구석을 발로 댄 경험을 바탕으로 군민이 바라는 바를 섬김의 자세로, 오로지 군민만을 생각하며 현안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반드시 대한민국 1등 행복도시 완주를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국 후보는 "지난 민주당 공천심사 과정에서 전북도당 공관위의 판단과 달리 중앙당의 아쉬운 판단으로 무소속으로 출마했지만 35년 동안 한결같이 민주당을 지켜왔다"며 "인제든 마음의 고향인 민주당으로 돌아갈 것"



이라고 말했다.

또한, 국 후보는 "완주군 발전을 위해서라면 다른 후보와 언제든지 협치의 문을 열어 놓고 있다"며 "타 후보의 좋은 공약은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국 후보는 "상대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 선거, 소속 정당 선거보다는 인물과 정책 중심의 정책 선거가 될 수 있도록 겸손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김제시, '최우수·우수' 수출전문단지 2개소 선정

인센티브 지원 통한 지속적 성장 계기 마련

김제시(시장 박준배)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정하는 2022년 농산물 전문생산단지 운영실태 평가에서 판매수출전문단지 2개소가 '최우수·우수'를 받았다고 밝혔다.

농산물전문생산단지(이하 '농산물단지')는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 및 수출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일정규모를 갖춘 집단화된 농산물 생산지역을 말한다. 매년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

식품유통공사가 3개 분야 11개 항목의 지표를 선정 평가하고 있다. 이번 '최우수' 평가를 받은 ▲김제지평선배영농조합법인(대표:경지중)과 '우수평가'를 받은 ▲농업회사법인(주)농산(대표:조기심) 2개소는 지난해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시장 환경에도 불구하고 김제시의 신선 농산물 수출 실적 682만 달러를 달성하는 데 앞장서 수출 견인 역할을 톡톡히 했다.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농산

물단지는 조직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교육비를 지원받고, 물류비 인센티브(최우수 7%, 우수5%)를 추가로 받는다.

이를 통해 각 단지가 지속적으로 성장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병철 김제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세계적으로 안전 먹거리가 대두됨에 따라 김제시 농산물단지가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조직화·규모화함으로써 농산물수출을 선도하는 단지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전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 낙우회, 정성주 김제시장 후보 지지 선언

"위기에 처한 김제 축산업 살릴 유일한 후보"

한국낙우협회 전북도지회 김제 낙우회 회원들은 19일 정성주 김제시장 후보 캠프를 찾아 "위기에 처한 김제 축산업을 살릴 유일한 후보로 정성주 민주당 김제시장 후보를 지지한다"고 선언했다.

강영식 낙우회장은 "최근 사료값, 비료값, 원자재값 폭등, 인력난이 가중되고 있으나 당국의 대책은 너무 미온적이다"며 "정성주 후보가 내건 '김제 농업수도 위상 확립' 공약에 회원의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서 "호남평야의 중심인 김제시

는 농업과 농민이 민생의 근본이 돼 왔다"며 "여기에서 한우와 낙농 등의 축산메카로 떠오르는 상황이기때 그동안 김제 농축산업과 농민들을 향한 진심어린 애정을 가진 정성주 후보의 당선을 적극 지지한다"고 덧붙였다.

정성주 후보는 "육우산업의 발전과 무너져 가는 낙농 기반을 일으켜 세울 대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며 "6.1지방선거 승리로 낙우회원들의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피력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 청년·신혼부부 주거비 지원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김제시는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경감과 안정적인 주거생활 지원을 위해 2022년 상반기 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청년(만18세 이상 30세 이하), 신혼부부(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로서 무주택자이면 신청이 가능하며,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와 공공임대 입주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요건은 신청일 현재 김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년·신혼부부(부부 모두)이며 사업소득자나 근로소득자, 귀직급여 수급자격자로서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여야 한다. 지원금은 작년 12월부터 올해 5월 까지의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납부 금액으로, 연간 최대 200만원까지 지급하며, 자격조건 유지 시 최대 7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접수는 6월 2일부터 15일까지 시청 건축과 주택행정팀으로 신청하면 되며(시 홈페이지 공고 참고), 6월 말까지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전주매일 캠페인